

# “야구 갈증 풀자”... 시범 경기 ‘구름 인파’



야구팬들이 9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시범 경기에서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30경기 만에 데뷔골 엄지성 “너무 신나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스완지시티에서 뛰는 공격수 엄지성(22·사진)이 잉글랜드 무대 입성 이후 공식전 30경기째 만에 데뷔골을 맞았다. 엄지성은 9일(한국시간) 웨일스 스완지의 스완지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들즈브러와 2024/2025 챔피언십 36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26분 골맛을 봤다. 엄지성의 득점은 결승골이 됐고, 스완지시티(승점 44)는 1-0으로 승리해 3경기 연속 무패(2승 1무)를 이어가며 15위에 랭크됐다.

미들즈브러를 상대로 4-2-3-1 전술로 나선 스완지시티는 엄지성을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시켰다.

엄지성은 전반 26분 중원에서 볼을 이어받아 전방으로 쇄도한 뒤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미들즈브러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지난해 7월 광주FC를 떠나 스완지시티에 입단하면서 잉글랜드 무대에도 전한 엄지성의 데뷔골 순간이었다.

이날 경기에 앞서 도움 2개(정규리그 1개·리그컵 1개)만 기록했던 엄지성은 공식전 30경기(정규리그 27경기·리그컵 2경기·FA컵 1경기)째 출전한 미들즈브러전에서 고대하던 잉글랜드 무대 데뷔골을 작성했다.

엄지성은 스완지시티 입단 이후 지난해 10월 A매치 도중 무릎을 다쳐 8경기나 결장하는 힘든 시절도 보냈지만, 이후 꾸준히 출전 시간을 늘려면서 마침내 리그 1호 골의 기쁨을 맛봤다.

득점포를 가동한 엄지성은 후반 29분 올리버 쿠퍼와 교체돼 벤치로 복귀했고, 스완지시티는 엄지성의 골을 끝까지 지켜 승리했다.

경기가 끝난 뒤 앨런 시헌 감독은 “엄지성이 멋진 골을 터트렸다”며 “스완지시티에서 첫 득점이었다. 더 많은 골을 터트릴 것 기대한다. 엄지성은 정말 좋은 선수다. 첫 득점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리는 한화의 역사적인 첫 경기는 17일과 18일 삼성전이다.

2022년 착공해 지난달 28일 준공한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는 좌측 99m, 우측 95m로 지어지는 비대칭 구장이다. 우측 펜스까지 거리는 국내 야구장 가운데 가장 짧은 대신 8m 높이의 ‘몬스터 월’이 자리해 야구팬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최근 40여 일 안팎의 전지 훈련을 소화하고 돌아온 10개 구단은 이번 시범 경기를 승패보다는 선수들의 기량을 최종 점검하는 무대로 여기고 있다. 특히 프로야구에 첫발을 디딘 새내기들과 각 구단 프런트가 야심 차게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이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최대 관심사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2025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 이들 연속 구름 관중이 몰렸다.



롯데는 9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KIA와 시범 경기를 앞두고 1만7890장의 입장권을 모두 판매했다고 밝혔다.

8일 KIA와 롯데의 부산 시범 경기엔 1만7352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롯데는 시범 경기 기간 내야 관람석만 개방하고, 주말 경기는 좌석당 5000원의 입장료를 책정했다.

평일 경기는 무료 개방한다. 그라운드석 88석만 유료 판매한다.

지난 시즌 1088만7705명의 관중을 모아 1982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1000만 관중

사직 롯데-KIA 1만8000명 몰려 개막전 5개 구장 6만7000명 환호  
주자 없으면 20초 내 투수 ‘피칭볼’ 타자 33초 내 타석 진입 규정 눈길



지난해 3월1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KBO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 시범 경기에서 피치클록이 작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돌파한 프로야구는 올 시즌에도 심하지 않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전 최대 관중 기록은 2017년 840만688명이었다.

시범 경기 개막전이 열린 8일 전국 5개 구장엔 총 6만70264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시범 경기는 8일부터 18일까지 팀당 10경기씩 총 50경기를 진행하며, 새 시즌부터 도입되는 규정과 규칙을 모두 적용한다.

시범 경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KBO리그에 처음 실전 도입되는 ‘피치클록’이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2023년 처음 도입한 피치클록은 내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국내 선수들도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

지난해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도입되는 KBO리그 피치클록은 투수는 주자가 없으면 20초, 주자가 있으면 25초 이내 투구를 해야 한다.

타자는 33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서야 하고, 타석당 타임아웃은 두 번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투수는 볼 1개, 타자는 스트라이크 1개의 제재를 받는다.

경기 스피드업을 위해 도입된 피치클록은 지난해 시범 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24분을 단축하는 효과를 보였다.

지난해 도입된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은 올 시범 경기에서 하향 조정된다.

KBO는 현장 의견에 따라 키 180cm의 타자 기준 스트라이크존을 지난해보다 1cm 가량 내렸다.

새 홈구장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

## 배드민턴 안세영 오를레앙 마스터스 결승행

### 중강호 ‘천위페이’와 격돌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사진)이 오를레앙 마스터스 결승에서 중국의 강호 천위페이와 맞붙는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9일(한국시간) 프랑스 오를레앙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4강전에서 가오광제(중국·17위)를 2-1(20-22

21-7 21-14)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새결승 상대는 안세영의 전적으로 알려진 천위페이이다. 10일 천위페이가 결승을 마치고

으로 오를레앙 마스터스(슈퍼 300)를 마치는 안세영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대회인 전영오픈에 출격한다.



##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